



# ITU-T RevCom 및 TSAG 협력강화 라포처 그룹 국제회의

**박기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sup>1)</sup>

**박정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통신융합부 부장<sup>2)</sup>

**이민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통신융합부 전임연구원<sup>3)</sup>

## 1. 머리말

ITU-T RevCom(Review Committee)은 2012년 WTSA(세계전기통신표준총회,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의 결정<sup>4)</sup>에 따라 설립되어 표준화 환경의 변화에 대응키 위한 전략적 차원의 ITU-T의 연구반 구조 및 작업 방법의 검토, 타 표준 개발기구와의 공조 및 협력 메커니즘 검토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ITU-T TSAG(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은 ITU-T의 제반 활동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ITU-T A시리즈 권고(Recommendation)

등에 정의되어 있는 작업 방법 및 ITU-T 작업 프로그램(work programme)과 ITU-T 표준화 활동과 관련된 내외부 협력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그중에서도 TSAG 산하 협력강화 라포처 그룹(TSAG Rapporteur Group on Strengthening Collaboration)은 ITU-T와 타 표준 기구 간 협력 모델을 검토하고 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그룹이다.

본 고에서는 지난 2015년 1월 개최된 ITU-T RevCom 및 TSAG 협력 강화 라포처 그룹 회의의 핵심 이슈 및 주요 논의 결과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고자 한다.

1) ITU-T RevCom Vice-Chairman(아태지역 대표); RevCom 한국 수석대표

2) ITU-T SG2 Vice-Chairman

3) 한국ITU연구위원회 ITU-T 연구단 총괄 간사

4) WTSA-12 Resolution 182 참조

## 2. 주요 회의 내용

### 2.1 ITU-T RevCom (Review Committee)

ITU-T RevCom 회의는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튀니지의 튀니스에서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에는 일본, 캐나다 등 총 14개국에서 80여 명이 참석하였고 한국에서는 3명의 국가대표단이 참석하였다.

금번 RevCom 국제회의의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ITU-T 연구반 구조조정, 표준화 전략팀 설치 및 운용, 향후 작업계획 관련 사항 등이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특정 이슈를 통합하여 다룰 수 있는 그룹 생성을 제안하는 국가기고서와 RevCom의 명확한 향후 작업 계획(세부 타임 라인, WTSA-16에 리포트 제공을 위한 명확한 결과 등) 설정 등을 제안하는 섹터 기고서(ETRI)를 제출하여 반영 시킨 바 있다.

특정 이슈를 통합할 수 있는 신규그룹의 운영 제안과 관련하여 캐나다 등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신규 그룹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지하였으나 프랑스의 오렌지텔레콤, 미국 알카텔 루슨트 등은 신규 그룹 설립의 권한은 TSAG에 있음을 지적하는 등 약간 다른 입장을 보였다. 결국, 여러 가지 논의 끝에 특정 이슈를 통합하여 다룰 수 있는 신규 그룹, 즉 수직적(vertical) 구조의 새로운 그룹 생성 시 후보 주제는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oT(Internet of Things), 5G가 거론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수직적 그룹 설립 제안은 차기 2015년 6월 TSAG 회의에 기고하도록 요청받았다. 향후 국내 회의를 통해 한국에서 제안할 수 있는 후보

기술을 논의하고, 한중일(CJK)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전략적인 후보 기술 선정 및 협력 논의가 필요하며, 캐나다는 수직적 그룹 설립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캐나다와의 협력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ETRI에서 제안한 기고서는 이미 이번 연구회기의 반이 흘러가고 있음을 감안하여 WTSA-16(2016년 전기통신표준총회)에 지난 WTSA에서 요청받은 내용들을 제대로 정리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지나간 RevCom 회의들의 결과를 요약과 함께 명확한 향후 작업<sup>5)</sup> 계획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이 반영되었다. 또한, ETRI의 제안대로 제한된 시간을 고려하여 향후 액션 플랜에 반영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차기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작업계획의 현행화 및 세부사항들에 관한 논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본 제안과 연계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중요한 관심사항이나 표준화 주제 등이 2016년 WTSA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사전 검토와 준비를 철저히 하여 중장기적으로 RevCom의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TSSC(Technical Standard Strategy Team) 그룹 설립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일본은 ITU-T 표준화 전략 기능을 강화하고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TSSC 그룹을 설립할 것과 해당 그룹의 참가자, 회의 개최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프랑스 오렌지텔레콤 등은 일본에서 제안한 그룹은 TSAG의 업무 영역임을 강조하였고, 특히 캐나다는

5) 종전에 여러 번 WTSA에서 그랬듯이 회의 직전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 연구반 구조 등을 유지하는 차원 등의 결정을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WTSA-16에 보고되어야 할 중요한 제안 등의 실질적 내용들과 함께 상세한 작업 계획을 명확한 타임 라인에 따라 도출하자는 것이 제안의 핵심 내용임.

새로운 그룹 설립보다는 TSAG 산하의 서브 그룹으로 설립하거나, TSAG의 회의 기간을 늘려 표준화 전략을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한국은 기본적으로 ITU-T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일본의 제안을 지지하나 ITU의 성격상 규제 및 정책적 이슈들에 대한 표준화도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Standard Strategy Team’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연구반 평균적 회의 빈도수를 고려하여 일본에서 제안한 전략 그룹의 회의 개최수를 재검토할 것 등을 제안하여 반영되었다. 회의 결과 해당 그룹 명칭을 SSC(Standard Strategy Team)로 변경하고, 현재 연구반의 평균적 회의 빈도를 고려하여 1년에 2회 회의 개최 혹은 2년에 3번(연구반과 동일한 주기로 회의 개최) 개최 등의 내용으로 정리하여 차기 TSAG 회의에 제안하기로 최종 합의되었다.

## 2.2 ITU-TTSAG 협력 강화 라포처 그룹

2015년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개최된 지난 ITU-T TSAG 협력 강화 라포처 그룹 국제회의에는 캐나다, 프랑스 오렌지텔레콤, 독일 등 약 10개국 45명이 참가하였으며, 한국은 3명이 국가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ITU-T 권고(Recommendation) A.4<sup>6)</sup> 및 A.6<sup>7)</sup>의 자격 검증 범위의 수정 제안 국가 기고서를 제출하여 본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제안 사항들이 반영되었다.

본 사항과 관련된 논의의 경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지난 2014년 1월 개최된 TSAG 협력 강화

라포처 그룹에서 A.4 및 A.6 상에 규정되어 있는 ‘포럼/컨소시엄’ 및 ‘국가 및 지역 표준개발기구’와 ITU-T 간의 협력 및 정보 교류의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하고 중복된다는 이유로 두 권고안의 병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 후 2014년 6월 회의에서는 본 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프랑스 오렌지텔레콤, 캐나다는 두 권고의 병합을 찬성하였으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등 많은 나라가 병합을 반대하였다, 특히, 한국은 A.4 및 A.6 권고의 생성 배경, 목적 등이 다르므로 SDO(표준 개발 기구)와 포럼/컨소시엄은 구분되어 해당 기구에 대한 협력방안이 논의되어야 하며, 양자가 동등하게 취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함을 강조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 및 아프리카 지역 회원들의 지지를 얻었다.

위와 같은 논의의 연장선 상에서 한국은 이번 회의에 협력 및 정보교환을 위한 프로세스 자격 범위를 정의한 A.4, A.6의 Annex A(부기)에 SDO와 포럼·컨소시엄이 구분되어 자격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안하는 기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결국 회의에서 반영되었다. 특히 표준을 ‘개발’하는 기구와, ‘개발과 관련된’ 기관은 ‘표준 개발 기구’라는 항목에 모두 포함될 수 없음을 명확히 주장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 제안을 지지하였으며 참가자들은 Annex A 개정을 위해 문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였다. 한국은 지속적인 기고서 제출을 통해 SDO와 포럼/컨소시엄은 동일하게 구분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Annex A에 이를 일단 반영하였으므로, 향후에 지속적으로


6) A.4 : ITU-T와 포럼·컨소시엄 간의 교류절차2) ITU-T SG2 Vice-Chairman

7) A.6 : ITU-T와 국가·지역 표준개발기구 간의 협력과 정보교환

권고 개정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두 권고의 병합을 반대하는 국가(사우디아라비아 등)가 이번 회의 논의에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였으므로, 병합을 전제로 권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차기 TSAG 회의에서의 논의될 기고서를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이슈가 WTSA-16에서도 논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동향 관찰이 요구된다.

### 3. 맺음말

차기 RevCom 회의는 2015년 5월 29일~6월 1일, TSAG 회의는 6월 2일~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WTSA-16(2016년 세계 전기통신표준총회)가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금년부터는 본격적인 총회 이슈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5년 TSAG 및 RevCom 회의에서 제출되는 기고서 및 국가별 입장을 파악하여 WTSA-16 준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PP-14에서 ITU TSB 국장을 배출하는 등 ITU-T 표준화의 주도적 역할을 천명한 만큼 향후 ITU의 표준화 활동을 보다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강화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통신 용어사전  
<http://terms.tta.or.kr>, 앱(정보통신 용어사전)

**모바일 보상** mobile reward



소비자가 스마트폰 등으로 특정 광고를 보거나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인터넷에서 쓰는 전자 화폐 등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 이용자로 하여금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내려받게 하기 때문에 광고 노출 효과가 좋은 것으로 인식됐다. 스마트폰용 게임, 모바일 앱, 인터넷 포털, 이동 통신 사업 등에서 사용된다.